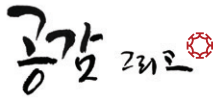


공감 지리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5 Winter 2019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5 Winter 2019



이지은 작가 <겨울 바다>(2017)

새벽의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겨울 바다의 모습은 무척이나 묘하고 아름답다.
보는 풍경뿐만 아니라 새벽의 차가운 공기 냄새, 일렁거리는 물결의 냄새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 소리와 희미한 보랏빛 풍경은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생각이 든다.
두껍게 입은 코트 때문일까 싶기도 하고,
몸 안에서 나오는 입김 때문일까 생각도 든다.
- 2017년 1월 24일 작가의 일기 중

통권 35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19. 11. 20.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문진우 신용철 심창신 양화니 이연승 이재희 홍동식

편집기획 조형수 박슬기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051-807-5100

04 여는글

「비전 2030」과 부산문화재단의 새로운 과제



공감의 뱃고동

- 10 **Space**
공간을 통해 꽃피는 관객문화, 모퉁이극장 이야기
- 16 **Harmony**
노인 문화는 우리 사회의 자원이다
- 22 **Issue**
예술인을 위한 도우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
- 26 **People**
탈춤과 마당극 운동의 대부,
채희완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공감리뷰

- 34 광장에 걸린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

B-side

- 42 독립영화와 배급: 마음을 쓰게 되는 일



도아와요 부산향애

- 50 **니, 그거 아냐?**
부산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가야금산조가
있다는 걸 아는가!
- 58 **누꼬?**
낮은 곳에서 음악을 연주한 예인,
가야금산조 명인 신명숙
- 64 **거 가봤나?**
한국 근대사를 품은 명소, 우암동 소막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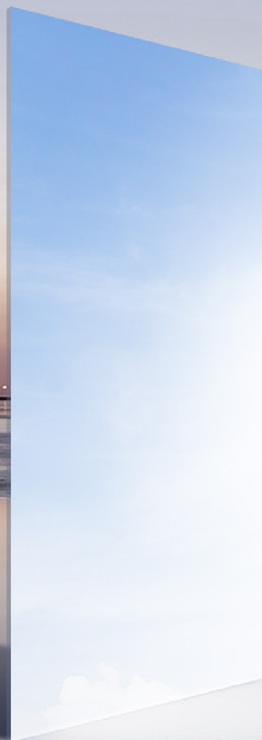
그리고 재단

- 72 **듣기**
부산문화재단 10년, 비전 2030을 준비하며
- 76 **말하기**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을 설계하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82 **보기**
부산문화재단이 걸어온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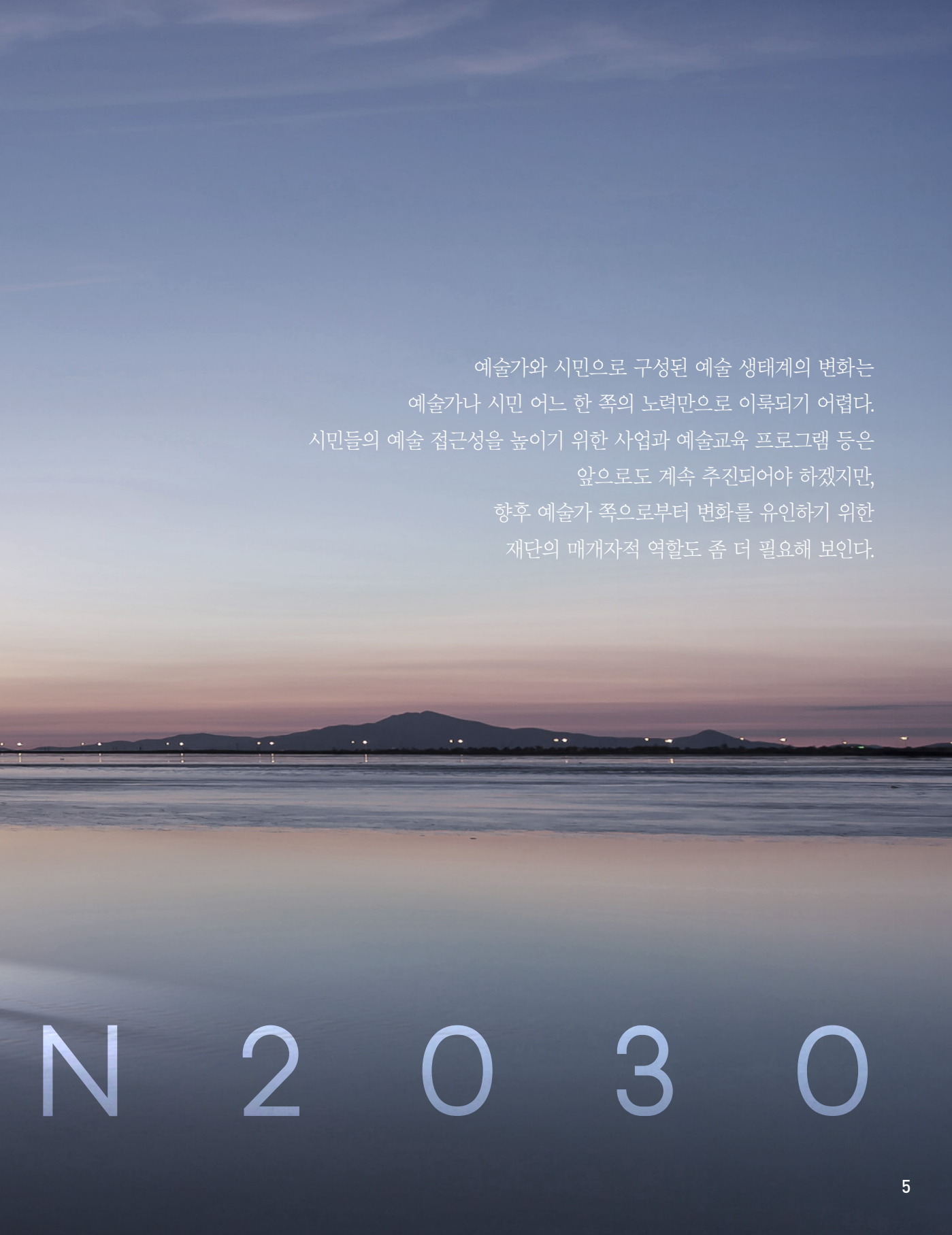
「비전 2030」과 부산문화재단의 새로운 과제

글. 이제희 경성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본지 편집위원

부산문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간의 활동을 위한 청사진이라 할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지난 2년에 걸쳐 지역사회 시민, 예술인, 재단 임직원, 외부 전문가, 부산시 관계자 등 3천 600여 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물이라고 한다.



V I S I O



예술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예술 생태계의 변화는
예술가나 시민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이룩되기 어렵다.
시민들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향후 예술가 쪽으로부터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재단의 매개자적 역할도 좀 더 필요해 보인다.

N 2 0 3 0

부산문화재단의 활동을 도약시키는 틀, 비전 2030

「비전 2030」에서는 새로운 비전으로 ‘내 삶과 함께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내걸었고, ‘시민과 함께,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미션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플랫폼형 지원체제로 예술 생태계 회복, 참여하고 기획하는 시민 문화권 확산, 평화와 연대의 아시아 해양문화 허브 구축, 소통과 협력으로 책임 있는 열린 경영 실천이 그것이다.

지난 10년간 부산문화재단은 어려운 초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가의 창작 지원과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고, 감만창의문화촌을 비롯한 부산시 예술창작 공간의 수탁과 운영, 조선통신사 사업과 그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비전 2030」은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부산문화재단의 활동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틀로서 의미가 크다. 이번 「비전 2030」에서 부산문화재단의 향후 정책과제를 예술의 사회적 가치 체계로 재구조화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추진과제에서 커뮤니티 아트의 활성화를 통한 빈곤과 배제 계층의 사회문제 대응, 소수자의 문화권 보호와 문화다양성 확산을 통한 사회갈등 완화,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관련한 정책 개발 등을 크게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술과 시민을 이어주는 문화예술 매개인력 지원 사업,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도 이전 대비해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생태계 변화를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부산문화재단이 「비전 2030」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재단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설계한 것은, 시대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시의성이 있고 적절해 보인다. 다만 예술의 사회적 가치 증대는 몇 가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가 변화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술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예술 생태계의 변화는 예술가나 시민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이룩되기 어렵다. 시민들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향후 예술가 쪽으로부터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재단의 매개자적 역할도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관 관람자를 손님과 고객으로 분류한 연구(되링 Zahava D. Doering)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20세기 말부터 관람자를 유치하는 일이 미술관의 주요 과제가 되면서 ‘손님(guest)’으로서 관람자라는 관점이 대두했다. 미술관이 관람자를 집에 찾아온 손님처럼 대접하고, 이들이 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람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호의는 예술 교육이었다. 그런데 미술관 예술교육에서 문제는 관람자를 예술적 자개발 상태에 있다고 보고, 교육을 통해 예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온 점이다. 미술관은 주인 입장에서 전문가 역할을 맡고 관람자는 아마추어로서 교육받고 학습하는 손님인 셈이다. 이 경우 미술관과 관람자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수직적 관계로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작품 제공을 위한 노력

미술관의 새로운 발전 방향은 관람자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객(client)으로서 관람자'라는 관점이다. 여기서 미술관은 관람자와 대등하고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다. 재무 의뢰인과 회계사 혹은 소송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처럼, 미술관이 관람자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여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손님을 환대하는 일은 주인으로서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업무이지만,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업무가 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예술가의 역할이 급진적으로 변하면서, 예술가로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미술관과 관람자의 관계에서처럼, 지역 예술 생태계에서도 시민들이 예술가와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이제 수용될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 사이에 예술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일정한 괴리가 남아있다. 특히 예술가로서는 작품 우위의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시민들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작품이 성공하지 못하면 시민들의 예술적 소양 부족이나 다른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예술가들의 작품 중심적 사고는 생산자 위주의 접근이다. 이제는 예술가들이 소비자 위주의 접근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모든 활동을 자기 위주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고객으로서 시민들의 욕구와 선호, 동기와 태도에 대해 체계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맞게 소비자를 변화시키려 하는 대신,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작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다. 부산문화재단도 「비전 2030」의 수행 과정에서 매개자적 노력을 더욱 기울여, 지역 예술 생태계에서 예술가와 일반 시민의 괴리가 줄어들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예술이 널리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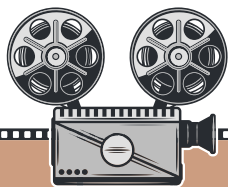
공간의 배고동

- 010** **Space** | 공간을 통해 꽃피는 관객문화, 모퉁이극장 이야기
- 016** **Harmony** | 노인 문화는 우리 사회의 자원이다
- 022** **Issue** | 예술인을 위한 도우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
- 026** **People** | 탈춤과 마당극 운동의 대부, 채희완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며,
곧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고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공간을 통해 꽃피는 관객문화

모 통 이 극 장 이 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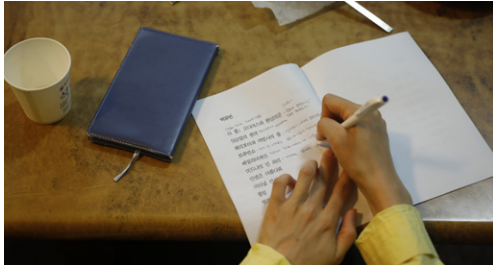
글. 김현수 모통이극장 대표, 관객문화활동가, 관객 중심 영화프로그램 기획자

모통이극장은 2012년 중앙동 40계단 앞에 터를 잡고 개소했고 운영한 지 8년째가 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갔다. 그중에는 발자취가 끊어진 이들도 있고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 모통이극장 개소 전부터 관심을 가진 관계와 장소에 대한 공부로 모통이극장을 건사하고 사람을 만나온 밑절미가 되어왔다.

열며_ 모통이극장을 만드는 소소한 온기들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며, 곧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고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듯이, 이곳을 드나드는 관객들에게 모통이극장이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랐다.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적극적 환대’라는 생각으로 관객들이 모통이극장을 자신의 장소마냥 편안하길 희망하며 함께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모통이를 찾아온 많은 이들의 자리, 그 손길과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는 공간이 모통이극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모통이극장이 가진 별칭 중에 ‘작지만 큰 영화관’이라는 표현이 있다. 관객 각자가 한낱 익명의 수치로 그치지 않고 영화를 즐겁게 누리는 일상의 주인공으로서 펼치는 자유로운 활동의 영역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이들이 모통이극장이라는 한 장소에서 나누었던 무수한 말과 활동들이 관객문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 공간은 소소한 온기와 정감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관객문화가 되어간 관객들의 흔적과 기억들 몇 가지를 전하면서 모통이극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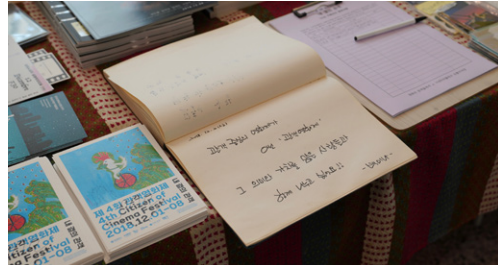
» 탐텐목록

나만의 탐텐목록

탐텐목록은 모퉁이극장에 처음 오는 관객들을 위한 친교 활동의 매개다. 사실 새로운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모퉁이극장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으면 했다. 누구나 혼자 처음 와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처음 방문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A4용지와 필기구를 전달한다. 차를 내는 동안 좋아하는 영화 10편을 작성하도록 권하고 영화목록에 나온 작품을 필미로 대화를 나눈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낯선 곳이지만 쉽게 말을 트고 지내고 영화친구를 사귀기도 한다. 탐텐목록은 인기 아이템으로 자주 오는 분들은 매년 목록을 업데이트하며 근황을 나눈다. 최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온 이세진 프로그래머는 관객 모으기가 힘들다는 고민을 토로하다가 탐텐목록을 보며 좋은 콘텐츠라며 돌아가서 시도해 본다고 했다. 지금까지 모은 탐텐목록만 2,000여 점이 넘는다. 관객들 각자가 가진 영화에 대한 애정들이 한 장 한 장 모여 모퉁이극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객응원록

모퉁이극장은 관객문화 응원을 표방하지만 관객들의 공간은 아니다. 영화문화 향유를 돕기 위해 관객들이 영화인, 문화예술인들과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든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



» 관객응원록

단체 운영자 등 관객문화를 알기 위해 방문하는 이들도 많다. 관객응원록은 모퉁이극장을 찾은 이들이 관객들의 활동과 장소에 응원을 보내는 기록이다. 영화감독과 배우, 크고 작은 영화제 집행위원장뿐만 아니라 해외 작가, 기관장, 청년문화기획자,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시민탐방객 등 다양한 이들의 시그니처 서명과 응원 문구가 담겨 있다. 프로그램 때 초청 게스트가 오면 이 관객응원록을 포스터와 함께 전해드리고 덕담 한 마디씩을 청한다. 모퉁이극장 공간을 둘러보고 활동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게스트들의 응원 멘트는 모퉁이극장 식구들과 응원복을 챙겨보는 관객들에게 큰 힘과 보람이다.



» 방명록을 작성하는 관객

방명록

모퉁이극장은 30~40명 정도의 관객을 수용하는 작은 극장이라서 조금만 주목하면 오가는 관객 한 명 한 명을 알아가며 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 관객이 중심임을 나타내는 시그니처 포스터

한 번 모퉁이를 찾은 관객들이 이후에도 다양한 시민 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관객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아카이빙해 왔다. 방명록에는 관객의 이름과 SNS 소식을 받을 연락처, 모퉁이를 알게 된 경로를 기재한다. 모퉁이극장 외의 장소에서 행사할 때도 방명록을 챙겨가 관객정보를 모으고 주소록을 업데이트한다. 현재 3,0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행사 취지와 특성에 따라 행사소식을 맞춤형으로 알리고 있다.

시그니처 포스터

모퉁이극장 벽면을 채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시그니처 포스터이다. 영화를 선정한 관객과 영화의 주인공을 겹쳐 관객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드러낸다.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패턴과 분위기를 변주하지만 2012년부터 견지한 관객이 중심이라는 모퉁이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시그니처 포스터를 만들어오고 있다. 이 포스터에 대한 코멘트는 다양하다. 해외 레지던시 작가들은 포스터가 멋져서 챙겨가기도 하고 SNS에 모퉁이 홍보를 해주기도 한다. 작년 일본 야마가타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난 고질라 제작자는 포

터 하나로 모퉁이극장의 비전에 공감하며, 영화계에서 오래 일했지만 관객의 자리가 없어 소외된 느낌을 받았는데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코멘트를 전해주기도 했다.

다과

모퉁이극장은 주로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대인 오후 7시 전후로 프로그램이 열린다. 시간을 맞추느라 저녁 식사를 못하고 오는 관객들이 많아 전부터 다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정기상영은 아니지만 6회차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고 있으니 행사에 모두 참여하는 관객이 있다면 70~80회, 즉 1년 중 한 계절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저녁을 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다과는 빠뜨리지 않고 준비한다. 메뉴는 허기를 채우면서도 계속 먹어도 건강에 해롭지 않고 섭취가 간소한 음식들로 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인근 향토빵집의 대표 메뉴인 밤식빵과 방울토마토, 냉온 메밀차이다. 여기에 향토기업 삼진어묵의 후원으로 4년 전부터 행사 때마다 어묵을 함께 내고 있다.



» 관객토크

관객토크

함께 영화를 본 경험을 공유하는 관객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혈중영화농도'가 떨어지기 전에 생생한 감흥을 발화하고 아카이빙하는 것, 관객이 영화에 전하는 소중한 목소리 중 하나일 것이다. 관객토크는 모토이극장 시민영화프로그램의 메인코너로 영화 감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영화인을 게스트로 초청하여 전문적인 영화평을 듣고 관객들 몇 명의 질의응답으로 정리되는 GV와 달리 관객토크는 상영작을 정한 관객 누구나 진행 게스트가 되고 참여관객 모두가 수평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문화를 지향한다.

모두가 편하게 감흥을 나눌 수 있는 토크 콘텐츠에 대한 고민 끝에 '소감 한 토막', '명장면 명대사', '이런 관객에게 추천한다' 등 세 가지 코너를 마련했다. 각각 영화에 대한 전체적 인상과 분석적 접근, 일상에서 영화의 쓰임새를 생각해보도록 이끄는 주제로 다양한 생각과 감상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 모토이에서 특별상영

을 한 영화 거장 보리스 레만, 샌프란시스코 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 임흥순 작가 등은 관객토크를 통해 관객들의 생각을 전해들을 수 있어서 감동적이고 인상적이라는 코멘트를 전해주었다. 이곳이 관객들의 목소리를 집중해서 듣고 경청하는 곳이기에 찾아오는 고정관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관객토크 대본

관객토크 대본은 프로그램마다 가진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참여 관객들의 말과 생각을 최대한 잘 담아내기 위해 준비하는 콘텐츠이다. 모토이극장에서 보유한 진행대본 샘플을 토대로 하여 진행자들이 수정 보완해서 완성하고, 행사 때 사용할 진행카드를 만들어둔다. 행사가 종료되면 진행자 이름을 기재해서 아카이빙해 두고 있다. 대본은 관객들의 정성과 손때가 묻어있는 소중한 관객문화이다. 상영회 때마다 최소 2명의 진행자와 게스트를 초청하는데, 특히 고령자와 청소년처럼

세대가 다른 이들, 시민과 예술가, 영화인 등 평소라면 대면하기 어려운 이들을 함께 초청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이력을 가진 시민들이 1년에 60~70여명 정도 진행자와 게스트로 초청되어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단체사진

모퉁이극장에서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힘으로 만든 상영회를 기억하는 의미로 단체기념사진 촬영을 한다. 사진을 찍는 데는 실명관객운동의 맥락이 있다. 영화를 접하는 관객들이 익명의 천만관객이 아니라 고유한 색깔을 가진 작가처럼 한 명 한 명 조명될 수 있도록 함께한 시간을 우리들의 초상으로 기록한다. 단체사진 외에도 행사 시작 전 활동가들과 진행자들의 행사 준비 모습, 프로그램 진행 과정도 기록사진으로 남겨 행사 현장스케치를 SNS에 공유하고 사진 자료는 활동가들이 관객문화를 일궈온 역사로서 아카이빙하고 있다.



» 관객서재

관객문화 작품들

모퉁이극장에는 관객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영화의 주인공과 모퉁이를 찾은 관객들의 모습을 이어낸 윤필남 작가의 관객커튼, 모퉁이극장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모습을 담은 정지영 작가의 작품, <영화의 기억> 전시에 출품되었던 작품들, 프로

램 포스터들이 공간을 상설 전시가 있는 전시장처럼 만들어준다. 여기에 관객들이 관객서재에 기증한 손때 묻은 영화 관련 책들, 여행 다녀온 기념으로 모퉁이에 선물한 영화 굿즈들과 소품들로 공간이 채워져 있다.

사람들

모퉁이극장에는 연령, 세대, 성별, 직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든다. 상영회, 영화제를 통해 찾은 관객들은 물론 대안적 문화와 공간, 새로운 교류활동에 목마른 이들과 일반 시민, 학생들이 주요 문화탐방지로 모퉁이를 찾아오기도 한다. 탐방객들에게 ‘관객문화 응원’이라는 모퉁이극장의 설립 취지, 공간과 활동에 대한 안내를 통해 모퉁이극장의 관객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지역의 문화예술활동과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퉁이극장과 만남을 계기로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청소년, 문화기획자로서의 일상을 고민하는 청년, 영화를 매개로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실천을 도모하는 시민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담으며_공간 모퉁이극장을 이루는 것들

모퉁이극장을 꾸려온 8년간의 시간은 관객 한 명 한 명과의 만남과 인연을 가꾸어온 시간이었다. 모퉁이극장을 찾은 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사연과 상상력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관객문화를 일구었고 <관객문화교실>, <애프터시네마클럽>, <시네엔두루>, <40계단시민극장>, <관객영화제>라는 관객 중심 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 모든 활동은 관객 중심의 영화향유활동을 응원해준 수많은 시민사회의 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직함을 내려놓고 관객이란 이름으로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A c t i v e A g i n g



노인 문화는

우리 사회의 자원이다

글. 한동희 사단법인 노인생활과학연구소 대표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노년학이라는 학문을 강의하고, 연구소를 통해 액티브 에이징(활기찬 노년: Active Aging)이라는 노인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진정한 노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이다. 노인은 부양을 받아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로서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편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한 노인 문화

힘없는 계층의 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존재할 수 있을까? 또 그 문화가 전승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화의 물결이 일어 노인 문화를 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양한 노인이 존재하고 있다. 고령화라는 거센 물결은 노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하위 문화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희망이 되고 있다.

2017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26개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지역이 93곳이었으며, 14%~20% 미만 지역이 59곳, 30% 이상인 경우는 35곳이었다. 이 수치들은 한국의 고령화 정도를 설명해준다. 특히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수 중 50세 이상의 장년층이 2010년부터 은퇴를 시작하여 노년층으로 흡수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보면, 현재 65세 노인인구는 7,380,510명(14.3%),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7,573,903명(72.8%), 0-14세 유년인구는 1,966,400명(12.9%)이다. 이중 신중년(50-64세)은 11,343,000명(21.9%)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인구(40-64세)는 19,664,000명으로 총 인구의 39.4%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7,380,510명으로 총 인구의 14.3%로 나타났다. 한국도 장노년층의 인구가 가장 많은 사회가 되었다.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노인 문화 형성의 필요성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두터운 중장년 계층이 매년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노인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긍정적인 노인 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어떠한 노인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와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준다. 보다 긍정적인 노인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국가의 건강성을 지탱하는 노인인구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장노년층의 건강한 자아, 활기찬 노후,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 등을 노인 문화로 연결시킬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 때이다. 문화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인간이 공동사회를 이룩하여 그 구성원들과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표현체계, 언어, 예술, 종교, 지식, 도덕, 풍속, 제도 등으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노인 문화 역시 노인이 속한 사회와 시대적 배경에 따른 삶의 양식을 습득하면서 다양한 노인의 문화를 만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은 일제 강점기, 광복, 6.25전쟁, 피란살이, 보릿고개, 이산가족, 4.19혁명, 5.16군사정변, 새마을운동, 5.18민주화운동, 민주항쟁, 88올림픽, IMF금융위기, 경제적 어려움,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시대, 4차 산업혁명, 지식정보 사회 등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극단적으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 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기술문화 등은 노인들에게 묻어 내린 삶의 양식으로 가치 체계를 만들었고 노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노인은 시대적 어려움을 오랫동안 경험하였고, 교육에 대한 열망도 높은 계층이다. 발전된 한국 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계층이지만 현대화는 뒤쳐진 세대로 노인을 자리하게 만들었다. 공원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노인, 할 일이 없이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거나 바둑을 두고 있는 노인, 여러 병원을 소핑하듯 다니는 노인, 병들고 힘없는 노인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노인 문화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노년의 방법과 지혜로 형성되는 신노인상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팽배하다면 노인 문화는 하위 문화로 노인이 갖고 있는 삶의 색깔들이 퇴색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인구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 역시 2018년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되었다.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의 역할과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노인으로 배려하기보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찾고자 했고, 사회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액티브 에이징 운동으로 연결되었다. 노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건



힘없는 계층의 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존재할 수 있을까?



강을 지키며 안전한 사회 환경을 통해 노년을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노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찾고자 하고, 자신의 세계를 삶의 보람에 두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신노인상과 연결되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신노인상은 새로운 노인 문화를 태동시키며 지역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노인,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노년의 방법과 지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년기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노년은 철학적 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잘 사는 방법, 잘 늙는 방법, 삶의 보람을 만들어내는 것 등 삶의 의미(meaning of life)를 찾아가는 방법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노인 한 분 한 분의 삶이 콘텐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한다.

새로운 노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

우리 사회는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 실천하는 노인들을 사회적 자본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가 노인 문화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한국의 건강한 노인 문화가 탄생할 것이다. 생활양식,

배움의 실천, 자원봉사, 일자리, 세대통합, 디지털기기 활용 등 이 모든 것들이 노인의 삶에 접목 될 때 보람과 사회적 자원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는 한국의 노인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맡고 있다. 배움을 실천하고 봉사하며 또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총체성의 특징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여기에 노인 개인의 삶과 생활양식을 풀어내고, 지능정보 기술이 가미될 수 있다면 한국의 노인 문화는 또 다른 의미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기존에 향유된 것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신문화를 통해 개인은 성장할 수 있다. 노인 문화는 노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 구성원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지는 것 등이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 문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표현체계, 언어방식, 도덕, 가치, 풍습, 제도 등을 더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노인의 생애가 노인 문화의 값진 자원

현재 필자가 펼치고 있는 마음의 영양소 노인교구프로그램은 노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만들게 한다. 특히 노인교구를 통해 그동안 숨어 있었던 노인들의 이야기가 표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노인 문화를 소중하게 다루었는가에 대한 반성도 함께 했다. 노인이 어렸을 때 즐겼던 놀이방법, 음식, 생활, 환경 등 이 모든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향수이고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이 펼치고 있는 신노인 문화 역시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된다. 노인들이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활동하고자 적극적으로 삶을 대하는 자세, 힘없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들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돌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노인들이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 문화예술인들이 은퇴하여 노년을 더욱 승화시키는 모습, 4차 산업혁명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 디지털기기를 열심히 배우고 활용하는 모습, 깨알 같은 글씨이지만 활동보고서를 밴드에 올리는 모습을 통해 노인들이 이제 자신이 늙어가는 방법을 새롭게 극복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한국은 206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1%에 이른다고 한다. 고령화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빠르게 우리 사회를 엄습할 것이다.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노인들의 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우리 사회가 보다 노인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장을 열어놓는다면 이것이 바로 건강한 초고령사회로 갈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노인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자원임을 깨닫고 한국의 진정한 노인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예술인을 위한 도우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글. 민상일 예술인생활안정자금사업시행TF 팀장

그동안 예술인들이 금융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았다. 정기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갖기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이 금융권의 문턱을 높인 것이다. 그런 예술인을 위한 대출지원 제도가 마침내 도입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다.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인정하는 금융지원 제도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는 정기적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기 어려운 예술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응답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수입은 지난 1년 평균 1,281만원이었고, 응답자의 73%는 예술활동 개인수입이 1,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도 76%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아무래도 프리랜서는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여건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보다 불리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금융권이 요구하는 신용등급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술인이라는 직업군은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예술인들은 서민정책금융에서도 소득의 연속성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예술인 고유의 직업적 특성을 인정해주는 금융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행히 2018년 하반기 문예기금(복권기금 전입금) 80억원이 사업예산으로 확보되면서 2019년 6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제도가 출범할 수 있었다. 물론 사업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올해가 시범사업이고, 내년 본 사업을 위한 예산의 증액이 예상되는 만큼 예술인을 위한 금융지원 편익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문화재단과 간담회 진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용자사업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협력은행은 KEB하나은행으로 방문상담이 가능한 해화동지점을 포함한 전국 각 지점에서 용자약정서 등 대출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업시행을 앞두고 2018년 7월부터 예술 협·단체(영상·창작·공연 등)와 전국 지자체 및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을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올해 2월 서울을 시작으로 6월까지 세종, 광주, 대구, 강원, 제주, 전북 등에서 예술인 대상 사업설명회와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집약된 예술인의 요구사항과 송실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연구용역(예술인복지금고 세부 운영방안, 2019.2월)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올해 5월에는 용자관리위원회를 출범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용자관리위원회는 9월 까지 네 번의 회의를 갖고 사업진행을 위한 규정 제정과 용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하였다.

예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예술인 대상 시행 사업

현재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금융지원 제도는 크게 세 가지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연내 시행 예정인 '전세자금대출', 마지막으로 내년 시행이 목표인 '예술저작 담보대출'이다. 이중 예술저작 담보대출은 사업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지만, 전세자금대출은 협력은행과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게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10월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출신청은 방문접수의 경우 KEB 하나은행 해확동지점에서, 온라인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홈페이지(www.artloan.kr)에서 가능하다. 사업은 월 단위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신청접수를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진행하고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말일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이다. 행정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월 단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술인 편의 확대를 위해 현재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연 2.2% 수준의 낮은 금리로 진행되는 대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지난 3개월(7~9월) 동안 625명의 예술인에게 대출을 진행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금액 한도는 최고 5백만원이다. 분기별로 결정되는 대출금리는 연 2.2%로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신청은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학자금, 결혼비용, 긴급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가능하다. 다만 사업대상을 예술인복지법(제2조 2항)에서 정의하는 예술인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이 대출신청 대상이라는 의미로, 이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02-366-0200)**으로 할 수 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융자사업 안내](#)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
[예술저작담보부대출](#)
[전월세주택자금대출](#)
[로그인](#)
[마이페이지](#)

공지사항

11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10월 신청 시 주의) 긴급생활자금 신청 시—
 10월 융자승인 관련 안내사항
 금융교육 이수 방법 안내
 공통서류 예시서류(안)
 (서울) 방문상담 및 접수처 운영 안내

서식자료실

자동이체신청서 양식
 공통서류 온라인 발급 가이드 및 서류예시(안)
 별지서식5, 약정서
 별지서식4, 융자추진서
 별지서식3, 사실관계확인서

자주하는질문

[신청] 제출서류중 일부가 아직 준비되어있는데 신청 가능한—
 [대출 승인 취소] 어떠한 경우에 대출 승인이 취소가 되나요?
 [상환] 대출을 받은 후 상환방법과 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상환]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상환] 거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절차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 정책금융 대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합니다.

01 사전준비

02 대출신청

03 대출심사

04 금융교육

08 대출완료

07 대출금지급

06 자동이체신청

05 약정서체결

탈춤과
마당극 운동의
대부

채희완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글. 심창신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총감독

사진 제공. 박병민

채희완 선생님은 70~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타올랐던 민중극 운동의 중심인물이다. 탈춤과 마당극 운동의 대부로도 불린다.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들어간 1970년 민속가면극 연구회란 이름의 탈춤반을 만들어 다른 대학들로 확산시켰다. 전통연희를 계승한 최초의 마당극 <진오귀곳>(1973년, 김지하 대본), 1974년에는 국립극장 무대에 최초의 극장 마당극으로 일본인들의 기생관광을 풍자한 <소리굿 아구>, 1978년 제일교회에서 공연한 김민기 노래극 <공장의 불빛> 등의 작품에 안무, 연출, 출연을 했다.

1974년 탈춤의 현장성을 계승·지향하는 <한두레>를 창립하여 도시빈민·노동·농민 현장과 연계한 마당극 운동을 했다. 1988년 전국의 12개 마당극 단체가 참가하는 '민족극한마당'을 주도했으며 이 축제는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민극협)>의 모태가 되었다. 소설가 황석영, 화가 김정헌 등과 함께 1989년 <한국민족예술인총연맹(한국민예총)>의 창립을 주도했다. 1980년 청주사범대학을 거쳐 1985년 부산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임용된 선생님은 1987년 극단 자갈치 예술감독 활동을 시작으로, 1989년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 초대의장 역임, 1993년부터 <민족미학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소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채희완 선생님이 지금껏 열심히, 마땅히 챙기고 있는 민족예술대동곳판은 '부마항쟁재현곳', '부산 해넘이곳', '원효문예대제전', '4·3항쟁곳', '새물맞이곳', '초혼 열사 부활곳', '고부봉기역사맞이곳', '3·1민속문화제', '민족통일대동장승곳' 등 숱하다. 가을햇살이 따사로운 10월의 어느 날 온천장 단골집에서 선생님을 만나 올해 진행한 민족예술대동곳인 '3·1백주년기념 민족예술큰잔치'와 '일본군 위안부 해원상생한마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쭙보았다.



무엇보다 삶은 재미있어야 하고,
문화운동은 여럿이 함께 사는 삶을
더 신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 선생님이 개념화하시는 ‘민족예술대동굿’이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공동문제의 사회적 공유를 위한 문화적 대응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예술대동 굿은 민속사회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도 고유한 문화공연으로서 또는 문화 이벤트로서, 더 나아가 한국적 공연예술 형태의 전형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축전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현실세계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민족굿, 민족예술대동굿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예술대동굿’은 민족 현실에 기초한 테마가 있는 나라굿이자 21세기 문화와 상상력의 시대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민족신명의 축전입니다.

◎ 지난 3월 서울 세종대로에서 펼친 ‘민족평화 신명천지 축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3·1운동의 민족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올곧게 이어받는 민간 차원의 민족사적 생명평화 역사맛이 축전입니다. 그 한 축은 한민족 대화합의 벽사진경(辟邪進慶) 민족예술대동굿 ‘한겨레 큰줄당기기’고, 또 한 축은 21세기 한국땅 씻김굿 생명천지의례 ‘생명평화제전 열두 마당’입니다. 이 두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상호병진하여 벌이는 대동굿판을 통하여 2019년 3월 1일, 서울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네거리 일대는 거래살림 융성과 민족화합통일을 기원하고 나아가 아시아 생명평화의 기운을 복돋우는 신명천지축전의 장이 되었습니다.

◎ 민족예술대동굿인 ‘한겨레 큰줄당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민주평화통일의 역사맛이 굿으로서 3월 1일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네거리에서 동부와 서부, 강남과 강북, 영동과 호서, 남과 북이 ‘민족독립줄’과 ‘생명평화줄’로 나누어 음양의 상생과 대화합을 이루는 민족예술대동마당입니다. 그 원천은 매년 3·1절을 기려 민속행사를 펼쳐온 국가무형문화재 제 26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줄다리기’로서 전국 규모로 광역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에 대한 미래전망적 지평을 열기 위해 초·중등생과 민간 조직으로 구성되는 골목줄당기기를 사전 행사로 실행하였습니다. 민족화합의지가 민속행사의 실행력으로 가열된다면, 머지않아 벽사진경 해원상생의 농경의례를 남부 줄과 북부 줄로 나누어 남과 북이 두 줄로 겨루면서 화합하는 남북교류 ‘한겨레 줄당기기’로 승화시킬 수도 있을 터입니다.

◎ 생명천지의례 ‘생명평화제전 열두 마당’은 무엇입니까?

상고대 제천의식과 연등회, 팔관회의 흐름을 잇고, 각 지역 고을곳에 담겨 있는 기층민중의 삶과 고난과 이상세계를 그려내, 서울 한복판 시청 앞 광장과 거리에서 풍류와 천시와 화백의 기맥을 되살린 것입니다. 한국인의 근원적인 마음 바탕인 천지인 삼재사상을 원효사상과 19세기 동학사상으로 버무려 이를 21세기 ‘지금 여기’의 문제 상황 속에서 생동하는 예술작품으로 반영해내고자 하였습니다.



» 채희완 기획연출작, 2018 창작탈춤페 지기금지 정기공연

니다. 1919년 이래 우리의 민중사를 분단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각각의 시기 민중의 역사적 힘이 움
뚝던 사건들을 마당극으로 엮어냈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는 2002년 붉은악마, 월드컵 경기 때
보여준 상고대 제천의식 같은 집단신명 현장의 부활, 같은 시기 미군 장갑차에 깔린 두 여중생의 검
붉은 황토길, 4대강 운하 개통 축하 특별유람선 좌초, 그 물난리와 함께 물대포에 쓰러지는 농민의
절규, 물바다에 묻힌 세월호, 이에서 한 가닥씩 피어오른 촛불들의 혁명 등으로 간주된 시사춘극의
탈춤 총체연행물입니다. 이는 물과 불꽃의 싸움으로 빚어진 민중역사 씻김굿 난장이라 할 것입니다.
'생명평화제전 12마당'은 '한겨레 큰줄당기기' 행사의 앞과 뒤 그리고 중간중간 쉼터에서 탈춤과 막
간 춘극과 춤으로 행사의 윤기를 더하며 예술적 메시지를 심화하는 노릇을 했습니다. 아울러 전야
행사로서 말문을 여는 터뒀음과 21세기 한국땅의 씻김굿으로서 제의적 마당극 양식의 현대적 생명
천지의례를 올렸습니다.

◉ 지난 8월 민주공원에서 진행한 '일본군 위안부 해원상생한마당'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떠도는 원혼을 천도하고, 살아 한 맺힌 삶을 위무하기 위해 온 국민이 작은 정
성을 모으는 민족굿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동해안 별신굿과 부산무형문화재인 기장오구
굿의 김석출 선생 일가가 펼치는 '해원상생굿'이 중핵적 흐름으로 관통하고, 이에 전국의 민족예술인
들이 모여들어 다양한 장르들이 산악백희(散樂百戲)처럼 합세하여 오늘날의 민족예술대동굿을 이
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굿과 전통연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깨뜨리고 그것이 민족예술의 근원적 힘
임을 재삼 확인해온 것입니다.

◉ 이 행사의 처음 명칭이 지금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993년 해운대 백사장에서 처음 올린 '정신대해원상생대동굿'은 이름이 '일본군 위안부 해원상생한
마당'으로 바뀌면서 그 의미와 내용이 좀 더 현실적이며 역사적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실
천적인 예술적 성취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참담한 역
사를 확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전쟁과 여성 폭력, 여성인권과 관련된 인류적 과제를 함께 제기함
으로써 일본 당국의 진정한 사죄를 통한 민족 간의 화해와 아시아의 새로운 인권 연대를 위한 전망
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해원상생한마당 현장에서, 채희완 소장

❶ 올해로 열여섯 번째 ‘해원상생한마당’을 펼쳤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올해의 ‘해원상생한마당’은 위령곡의 틀을 전야제전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은 주제의식을 더욱 첨예화하고 운동성을 강화하는 예술적 깊이를 더하여 공연예술작품들로 현대산악백희를 거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과 24일 부산민주공원 중극장과 소극장 그리고 앞마당에 올린 열여섯 번째 ‘일본군 위안부 해원상생한마당’은 판닥음을 필두로 ‘해원의 광장’과 ‘상생의 바다’로 나뉘어 운동성을 강화하는 예술적 깊이를 더해 시(詩)와 음악과 춤과 마당극과 영상의 한판 난장으로 일본의 국수주의를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과 죽음을 민족사적 상흔으로 보고, 이를 치유하고 일본과 진정한 화해를 주제로 삼은 예술작품들로 해원상생한마당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깃발로 앞세워 이 나라와 일본 당국에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족예술행동의 집회를 한 것입니다.

❷ 내년 2020년 또는 그 이후 활동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1988년 지리산 노고단과 임결령 사이에서 치른 ‘민족통일대동장승굿’을 시작으로 전국의 이름난 산자락 길목에서 그 지역민의 정성과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장승굿을 즐기치게 펼쳐 통일염원의 뜻을 더해 왔습니다. 지리산을 필두로 문경새재, 계룡산 갑사, 부산 금정산, 원주 치악산, 부산 민주공원, 영산영축산, 대구 비슬산, 강원도 평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광주 무등산에 장승을 심었습니다. 그 기운을 이어받아 내년에도 반드시 열한 번째 ‘민족통일대동장승굿’을 열고자 합니다.

인터뷰 내내 선생님은 “무엇보다 삶은 재미있어야 하고, 문화운동은 여럿이 함께 사는 삶을 더 신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늘 평강(平康)하시기를 기원한다.

공간 리넵

034 광장에 걸린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





광장에 걸린

부마민주항쟁 40주년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

글. 신용철 민주공원 교육문화팀장, 본지 편집위원

“산허리 안아 가을 하늘 품고서 기어이 민중미술. 포스트민중미술, 샤먼리얼리즘, 사회예술, 네오민중미술? 운동, 사조, 태도? 고고학에서 계보학으로? 교체와 단절에서 전환과 지속으로? 민중미술 깊은 바닥은 꿈틀거리고 물결은 일렁이며 파도는 출렁여. 뱃머리 호랑이 으르렁.”

(글쓴이의 페이스북 2019년 9월 타임라인 참조)



» 시민 참여 걸개그림 그리기 체험 후 기념 촬영



» 부산미술운동연구소·부산미술대학생연합준비모임, 민족해방운동사7·반공정권, 4월 혁명, 군사독재, 260×700cm, 걸개그림, 1989(제공·홍성담)

그림판으로 불러낸 시대의 목숨, 민중미술

‘걸개그림’이라고 했다. 줄여서 ‘걸개’라고 불렀다. ‘걸개’는 ‘걸+개’로 이루어진 말이다. 가리개, 깔개, 날개, 베개, 부침개, 불쏘시개 따위들이 비슷하게 생긴 동무들이다. ‘걸러고 그린 그림’이다. 걸개를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왜 걸었을까?

걸개그림은 절집에서 해마다 열리는 괘불재에 걸리는 괘불화(掛佛畵)에서 따온 것이다. 괘불재는 절집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마련하는 야단법석 잔치이다. 절집 마당에 덩그러니 있으나 쓰임새가 없던 당간지주에 때마다 부처그림을 높다랗게 걸면 절집마당은 절집 사람, 마을 사람, 탄따라 광대 떨어지들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잔치판이 되었다.

절집 걸개그림의 골과 마당을 알아차린 민중미술가들은 1980년대 민중미술 마당에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걸개그림을 그려 시대의 목숨들을 붙여넣었다. 걸개그림들은 벽에 그린 벽그림, 시민들과 함께한 판화들과 맞춤 추며 시대의 목숨들을 그림판으로 불러내었다. 누구나 그림으로 제 말을 펼치는 자리에 걸개그림, 벽그림, 판화 삼총사가 동무가 되었다.

걸개그림 위에서 출렁이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

‘부마사태’라고 불렀다.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는 일본의 ‘유신’을 본떠 제 스스로 한국의 ‘유신’이 되었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중의 봉기를 ‘사태’로 만든 이는 박정희이다. 1979년 10월 26





» 광영화_부마민주항쟁부활도_7,000×3,000cm,천막천에 아크릴 걸개그림(시민 180여 명 제작 참여)_2019



» 시민과 함께 그리는 걸개그림 현장

일 김재규가 겨는 총구는 박정희 제 스스로 마련한 총구이다. 박정희가 키운 새끼들이 전두환, 노태우 떼들이다. 유신의 그늘 아래 자라난 유신의 새끼들은 부산과 마산을 밟고 1980년 5월의 학살을 저지른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980년 '5.18민중항쟁'은 한 몸이다.

걸개그림은 이야기 그림이다. 그림틀 안에서 출렁이는 사건과 인물은 역사의 물결이다. ‘유신 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는 사람들의 입에 걸린 구호였다. 그림틀 안에 가운데 자리 잡은 사람은 떼는 학생, 노동자, 시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마항쟁은 선언문, 민주선언문을 뿌리며 학생들이 시작하였으나 시민이 함께 참여한 항쟁이다.

가운데 아래에서 우리 누이들이 재봉틀을 앞에 놓여 밤을 지새우고 있다. 경공업에 바탕을 둔 부산, 마산지역 경제구조는 신발, 섬유, 가발 공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공장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돈 벌러 나온 우리 누이들의 밤샘 작업으로 지탱되었다. 오른쪽과 왼쪽에서 눈을 감고 서있는 학생, 할머니, 농부는 고향에 두고 온 누이들의 가족들이다. 남자는 학교를 보내고 누이들은 공장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보여준다. 이런 사회구조는 왼쪽 위의 동일방직사건, YH사건(“배고파서 못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과 이어져 있다. 항쟁이 벌어졌던 장소도 보인다. 부영극장은 시민항쟁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장소이다. 함께 그려진 서면로타리탑, 용두산공원 타워, 시계탑은 당시 부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오른쪽의 불타는 건물은 주요타격대상 3곳(공화당사, 언론사, 파출소)을 상징한다. 각각 정당, 언론, 공권력을 상징한다. 박정희와 군사쿠데타의 주역, 시청 앞 탱크, 폭력 진압은 단색으로 처리하였다. 퇴색된 분홍색은 우울한 기억을 상징한다.

시민과 함께 그린
대형걸개그림 참여자들

[illegible]

» 시민과 함께 그리는 걸개그림
행사 당시 시민참여자 목록



» 시민과 함께 그리는 걸개그림 포스터

우리 시대의 새로운 걸개그림을 함께 만들다

걸개그림은 1980년대 민중미술에서 만들어진 그림들이다. 화가 곽영화는 1989년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이 그린 <민족해방운동사> 연작 11폭 가운데 여섯 번째 폭인 '반공 정권과 4월 혁명', 일곱 번째 폭인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부분을 함께 그렸다. <민족해방운동사>는 그 해 6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집회에 전시했으나 난입한 백골단에 의해 찢겨지고 불태워지고 말았다.

부마민주항쟁 마흔 해만에, <민족해방운동사>를 그린 지 서른 해만에 시민들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걸개그림은 다시 태어났다. 올해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곽영화의 밑그림에 시민 180여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색을 입히며 우리 시대 새로운 걸개그림 하나를 함께 만들었다.

걸개그림의 새 숨결은 <부마민주항쟁40주년기념전시-부마 1979 유신의 심장을 쏘다>(10/4-10/31, 민주공원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걸개그림은 우리 시대 그림의 '오래된 미래'이다. 광장은 우리들의 '오래된 아궁이'이다. 광장은 열려 있고 우리들의 아궁이는 이어져 있다.



» 부산미술운동연구소·부산미술대학생연합준비모임 민족해방운동사8-민주화운동, 부마항쟁_260×700cm, 걸개그림_1989(제공: 홍성담)

B- Side

042 독립영화와 배급:
마음을 쓰게 되는 일



독립영화와 배급: 마음을 쓰게 되는 일

글. 성송이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이사장

개봉은 늘 전쟁과도 같다. 단순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그 일의 의미가 집을 허물고 부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영화가 관객을 만나는 순간 예정된 해체일 터. 개봉을 위해 열심히 포장한 영화를 다시 개봉을 위해 풀어헤쳐 보이는 것, 그것은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그런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영화에 대한 설렘이 폐허가 된 마음을 추스르기 때문이다.





우리만의 양식으로 배급하는 장편 독립영화

언제나처럼 한 차례의 전쟁 같은 개봉을 마치고 지쳐 있던 때에, 그 다음 개봉작인 <기억할 만한 지나침>의 기획회의를 위해 감독님을 만났다. 영화 이야기를 매개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집에 돌아온 나는 나도 모르게 밤을 새워 마케팅 기획서를 만들고 있었다. 변변한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독립예술영화를 배급하겠다고 표방한 지 만 2년 6개월째. 아직도 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예술영화의 유통과 배급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다섯 번째 작품의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나는 ‘배급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늘 두렵다. 우리가 아직 풋내기이기도 하고, 배급의 기본적인 틀이 있다 한들 배급사마다, 영화마다 각기 다른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로 장편을 다루기 때문에 단편영화의 배급과 유통에는 익숙지 않다. 수도권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홍보 마케팅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유통과 배급은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 씨네소파의 스타일과 경험 등이 합쳐져 있다. 또 하나의 우리만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영화를 알아갈 때 독립영화는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영화라고 배웠다. 그렇다면 독립영화와 배급이라는 두 단어의 병합은 그 뜻에서부터 이상한 만남을 예정하고 있다. 대중이라는 다수의 관객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작품(독립영화)을 전국의 상영채널에 ‘배급’한다는 것은 철저히 자본시장 위에 세워진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어폐가 있다. 독립영화 배급은 매우 상업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반 자본적인 기묘한 작업이다.

배급, 영화와 관객을 만나게 하는 모든 일

기본적으로 유통업인 배급은 중간유통사나 출판사, 에이전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작된 영화를 상영관 등의 상영 채널에 유통하는 일을 담당하며 개봉에 맞춰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한다. 단순화하자면 2~3개월마다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런칭하는 일이다. 보기에는 홍보가 가장 비중 있는 일 같지만 수익 정산 역시 매우 중요한 배급사의 의무사항이다. 이렇듯 여러 산업적인 역할이 있지만 우리는 배급을 ‘영화와 관객을 만나게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극장개봉=배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두 달 남짓 개봉하는 것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많다. 수년 동안 영화를 관리하고 정산하는 일을 하게 된다. 특



하나 상영관 상영 외에도 공동체나 단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공동체 배급’, 온라인 채널에 유통하는 온라인 배급이나 영화제 출품 등 상영 채널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극장 개봉 전과 후에도 배급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영화에 따라서는 개봉을 하지 않고 영화제나 공동체 등만으로 관객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배급사를 시작하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영화를 만나는 일’이었다. 제작사나 감독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급을 의뢰받기도 하고,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고 우리 쪽에서 먼저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우리는 후자가 잦았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난 영화는 마이너의 마이너의, 지하 동굴 같은 영화들인데, 감독님도 개봉을 염두에 두지 않았거나 포기했던 작품들이 많았다. 씨네소파 배급의 미래는 그 취향에서부터 예정되어 있달까. 그 외에도 영화를 소개받기도 하고, 아무튼 친구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 케이스가 존재한다.

배급 형태 다양화, 독립영화 본연의 방식

그 후에는 모든 홍보가 그렇듯 자본이 필요하다. 독립영화는 자본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마케팅이 가능한 수준의 홍보 배급 예산이 필요하다. 미리 예산이 마련된 영화가 아니라면 우선은 개봉을 위한 자금 마련에 몰입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많은 영화들이 지원금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영화는 상업시장에서 핸디캡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원사업 일정에 맞춰야 하므로 개봉일의 타이밍을 정하기도 어렵고 규모를 확정하는 데도 애로가 있다. 작년 11월에 개봉했던 <마담B>의 경우 막바지에 추가 자금이 확보되어 (급작스럽게 예산규모와 배급기획을 조정하느라)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했다.



» 마담B Mrs.B. A North Korean Woman
2016 | 다큐멘터리 | 한국, 프랑스 | 71분 | 12세 관람가



- »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and All 2015 | 다큐멘터리 | 한국 | 90분 | 12세 관람가
- » 파란입이 달린 얼굴 A Blue Mouthed Face 2015 | 드라마 | 한국 | 111분 | 15세 관람가
- » 밤의 문이 열린다 Ghost Walk 2018 | 판타지, 드라마, 가족, 미스터리 | 한국 | 90분 | 12세 관람가

이렇게 자금이 확보되면 개봉을 위한 홍보에 돌입하게 된다. 영화의 대표적인 얼굴 격이 되는 포스터와 예고편도 이때 제작되고,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본격화된다. 사실 온라인 마케팅, 홍보 대행, 탁송사, 포스터, 예고편 등 홍보 배급 안에서도 많은 과정이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마케팅의 총괄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각 배급사의 스타일, 예산 규모, 기획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씨네소파는 그간 리뷰단, 배급기록집 '소파삼', 쇼케이스와 같은 시도를 지속해왔다.

실제로 독립영화 배급의 형태는 점점 더 개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것이 독립영화 본연의 배급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1개관에서만 단독 개봉하는 단관 개봉이 시도되는가 하면 기획 상영으로 영화와 관객을 매개하거나 지역 순회 상영으로 개봉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또, 좀 더 지역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네마의 가능성을 찾고 있기도 하다. 독립영화 간의 빈부격차는 매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배급적 실험은 한편으로 필연적이다.

대중이라는 다수의 관객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작품(독립영화)을 전국의 상영채널에 ‘배급’한다는 것은
철저히 자본시장 위에 세워진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어폐가 있다.
독립영화 배급은 매우 상업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반 자본적인 기묘한 작업이다.





» 기억할 만한 지나침 Ephemerals to Remember 2018 | 드라마 | 한국 | 166분 | 15세 관람가

누군가 꼭 이 영화를 봐주었으면 하기에

우리에게는 매 영화가 도전이다.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배급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혹은 더 나아가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재의 독립예술영화 시장 내에서 배급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독립영화 유통과 배급이 무엇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도 2년 넘게 영화를 배급하며 그 답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속 시원한 답을 도출할 수는 없지만, 그 한 차례의 고민 끝에는 당장 12월 개봉을 앞둔 영화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 있다.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터널 속에서 희망의 작은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시인 '김'의 이야기를 담은 감성 아트시네마 <기억할 만한 지나침>의 배급은 다시 '마음'에서 시작한다. 여러 물리적 환경과 제약에 치여 외면했던, 누군가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영화를 소개할 쇼케이스와 관객이 직접 발화할 수 있는 살롱 GV, 영화와 배급기록 그리고 DVD를 담은 '소파섬' 패키지 등의 심도 깊은 프로모션을 통해 소수의 관객에게라도 더 깊은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기획을 진행 중에 있다. 영화를 처음 만난 날 우리가 느낀 설렘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게 될 수 있을까. 돈이 되지 않지만 마음을 쓰게 되는 일, '독립영화'와 '배급'의 미스매치를 연결해보려는 이 실험이 큰 파도를 만드는 작은 물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아오요 부산행낭애

050 니, 그거 아냐? | 부산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가야금산조가 있다는 걸 아는가!

058 누꼬? | 낮은 곳에서 음악을 연주한 예인, 가야금산조 명인 신명숙

064 거 가봤나? | 한국 근대사를 품은 명소, 우암동 소막마을



부산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글. 정영진 문학박사,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사진 제공. (사)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 e뮤지엄



가야금산조가 있다는 걸 아는가!

가야금은 가야의 악기이다. 부산, 특히 동래지역은 금관가야의 일부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가야금은 부산의 악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가야금이 20세기 초 대중음악이었던 산조와 조우한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가장 인기 있었던 대중음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판소리이고 또 하나는 산조였다.



» 가야금 연주가 신명숙과 고수 구환석

부산의 대표적인 가야금산조 유파, 강태홍류

산조는 장단의 틀에 리듬을 얹은 기악 독주곡이다. 이런 가야금산조 가운데 강태홍류 가야금산조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이다. 원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1979년 5월 강태홍의 제자 김춘지(1919-1980)가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으나 지정 1년 후 타계하여 해지되었다. 그후 1989년 7월 6일 신명숙(1940-2018)이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의 보유자로 지정받았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막아내기, 눌러내기 등 어려운 기교가 많아 신묘한 산조로 평가된다. 그리고 선율의 특징은 슬프고 처절한 느낌을 주는 계면조보다는 맑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우조와 선율이 분명하고 정교하여 화창하고 맑은 느낌을 주는 강산제 음조를 많이 사용하여 남자의 기개와 풍류의 멋을 엿볼 수 있는 호쾌한 맛을 내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은 우리 부산사람들의 성향과 많이 닮아 있다.

강태홍이 선율을 짠 이 가야금산조는 오늘날 연주되는 가야금산조 중 연주길이가 가장 길며 그 구성 또한 독특하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세산조시·중모리의 장단 즉,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산조는 강태홍의 제자 김춘지, 원옥화, 구연우, 신명숙에게 전승되었는데 현재는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산조는 오늘날 한국 전통음악계에서 가장 많은 연주자 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야금산조에 가장 많은 연주자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듯 가야금산조는 분명 전통음악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음악임에 틀림없으며, 그것은 10여 가지가 넘는 많은 유파(流派)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쉽게 증명된다. 가야금산조의 여러 유파 가운데, 강태홍류는 현재 부산의 대표적인 가야금산조로 자리 잡고 있다.

강태홍의 방송 활동

강태홍(1893~1957)은 전남 무안(務安) 출생으로 그의 부친은 창극계의 효시를 이룬 인물이자 어전광대였던 강용환(姜龍煥, 1863-?)이다. 이처럼 음악 속에 젖어 있던 집안 환경은 그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로 그는 평생 동안 음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외길 인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였던 자료를 통하여 그의 음악적 활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방송활동은 대부분은 그가 40대에 서울 생활을 하면서 활동한 내용으로 음악가의 인생으로는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하여 주로 가야금병창과 산조만을 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가야금병창의 내용에는 적벽가(赤壁歌), 창랑가(滄浪歌), 대장부(大丈夫), 운담풍경(雲淡風輕), 아서라세상사(世上事), 박타령(박打鈴) 등을 주로 불렀으며, 특히 창랑가와 대장부를 즐겨 불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가 방송에 출연한 시기는 1933년부터 1940년까지로 약 7년여간이다. 이 7년여간 그가 방송에 출연하여 불렀던 병창의 내용은 적벽가, 창랑가, 대장부, 운담풍경, 아서라세상사, 박타령 등으로 대부분 반복하여 출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레퍼토리를 구사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강태홍의 방송활동 내용

가야금 병창

33.4.21{129, 화용도(華容道), 한성준(韓成俊)}; 34.10.4{212,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창극조적벽가(唱劇調赤壁歌), 한성준(韓成俊)}; 34.7.11{200, 단가운담풍경(短歌雲淡風輕), 흥부가난박타령(興夫가난打鈴), 지용구(池龍九)}; 34.8.3{203, 대장부(大丈夫), 범피중류(泛彼中流), 지용구(池龍九)}; 34.9.4{207, 명기명창, 범피중류(泛彼中流), 조상선(趙相鮮)}; 34.11.7{217,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춘향가, 지용구(池龍九)}; 36.1.4{262, 고수강태홍(鼓手姜太弘)}; 36.10.26{300,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창극조적벽가(唱劇調赤壁歌), 정원섭(丁元燮)}; 36.3.1{269, 병창(併唱), 한성준(韓成俊)}; 36.4.29{276, 병창(併唱), 조상선(趙相鮮)}; 36.4.9{274,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창극조적벽가(唱劇調赤壁歌), 정원섭(丁元燮)}; 36.7.22{287, 단가장부(短歌丈夫歌), 창극조박타령(唱劇調박打鈴), 정원섭(丁元燮)}; 36.8.26{291,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창극조박타령(唱劇調박打鈴), 정원섭(丁元燮)}; 37.1.20{314, 병창(併唱), 정원섭(丁元燮)}; 37.2.21{318, 단가대장부(短歌大丈夫), 창극조적벽가(唱劇調赤壁歌), 정원섭(丁元燮)}; 37.5.13{331,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창극조박타령(唱劇調박打鈴), 정원섭(丁元燮)}; 38.10.18{390,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창극조수궁가(唱劇調水宮歌), 한성준(韓成俊)}; 38.9.11{385,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창극조흥부가중(唱劇調興夫歌中)에서 유색황금가(柳色黃金歌), 정원섭(丁元燮)}; 39.1.24{401,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창극조제비노정기(唱劇調제비路程記), 정원섭(丁元燮)}; 39.10.5{426,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창극조박타령(唱劇調박打鈴), 한성준(韓成俊)}; 39.11.18{430, 단가대장부(短歌大丈夫), 창극조적벽가(唱劇調赤壁歌), 임종성}; 39.12.23{434,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창극조박타령(唱劇調박打鈴), 정원섭(丁元燮)}; 39.3.14{406, 단가창랑가(短歌滄浪歌), 창극조적벽가(唱劇調赤壁歌), 정원섭(丁元燮)}; 39.5.16{413, 단가대장부(短歌大丈夫), 창극조적벽가(唱劇調赤壁歌), 정원섭(丁元燮)}; 40.2.8{439, 단가아서라세상사(短歌아서라世上事), 창극조흥부가(唱劇調흥부가), 정원섭(丁元燮)}.

가야금 산조

33.4.21{129, 산조, 한성준(韓成俊)}; 34.8.3{203, 산조, 지용구(池龍九)}; 34.11.7{217, 산조, 지용구(池龍九)}; 34.9.4{207, 산조, 조상선(趙相鮮)}; 36.3.1{269, 산조, 한성준(韓成俊)}; 36.10.26{300,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원섭(丁元燮)}; 36.4.9{274, 중모리, 자진모리, 정원섭(丁元燮)}; 36.4.29{276, 산조, 조상선(趙相鮮)}; 36.7.22{287,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원섭(丁元燮)}; 36.8.26{291,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원섭(丁元燮)}; 37.1.20{314, 산조, 정원섭(丁元燮)}; 37.2.21{318,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원섭(丁元燮)}; 37.5.13{331,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원섭(丁元燮)}; 38.10.18{390,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한성준(韓成俊)}; 38.9.11{385,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39.1.24{401,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원섭(丁元燮)}; 39.10.5{426, 진양조, 자진모리, 한성준(韓成俊)}; 39.11.18{430,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39.12.23{434, 진양조, 정원섭(丁元燮)}; 39.3.14{406, 중모리, 자진모리} 39.5.16{413,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원섭(丁元燮)}; 40.2.8{439, 중모리, 자진모리, 정원섭(丁元燮)}.

기타

유행가반주(1936.4.24, 강태홍-가야금, 김영근-대금)



» 가야금 연주가 정금도와 고수 강태홍의 경성방송국 출연

또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병창과 산조를 함께 연주한 것이 대부분이며, 병창과 산조를 출연자가 함께 연주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강태홍뿐만 아니라 다른 명인들도 방송에 출연하여 병창과 산조를 함께 연주하였는데 당시 병창과 산조를 함께 방송에서 연주하였던 명인은 강태홍, 박상근, 성금연, 신쾌동, 심상건, 안기옥, 정남희, 한성기 등으로 이들 대부분은 오늘날 가야금산조 각 유파의 조종(祖宗)들이다. 한편 강태홍은 당시의 대중가요인 유행가의 반주에도 참여하였는데, 유명한 대금 주자인 김영근과 함께 청춘타령과 춘몽을 가야금으로 반주하기도 하였다. 즉 그의 음악적 활동범위가 전통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중성을 강하게 지향하는 유행가에도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록 그가 전통음악에 종사하지만, 아마도 생활의 궁여지책으로 그의 활동범위를 다각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구성

강태홍이 1933년에서 1940년 사이 방송에 출연하여 연주한 가야금산조는 대략 22회 정도이다. 물론 이것 또한 앞의 병창과 마찬가지로 가야금산조 하나만 연주한 것이 아니고 가야금병창과 함께 연주하였다. 당시 그의 가야금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방송 출연 초기인 1933년부터 1936년까지는 그의 산조에 장단명이 등장하지 않고 단순히 산조라고만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있다. 이후 1936년 10월 26일 방송부터 장단에 의한 장별 구분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그의 가야금산조에 장단에 의한 장별 구분이 생긴 것은 1936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고수였던 정원섭(丁元燮, 1879-?)이 장구를 맡고부터 강태홍류에 장단명이 붙기 시작하였다. 정원섭은 강태홍 이외의 다른 명인들과도 교류하였으며, 방송에도 고수로만 160여 회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초기에는 뚜렷한 장단의 장별 구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의 나이 40을 넘긴 1940년부터 장단에 의한 장별 구분을 가진 산조로서 체계를 갖추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수는 정원섭이 맡고

부터 장단의 구분을 가진 것으로 보아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장단 구성에 정원섭의 음악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 전에 강태홍과 함께 활동하였던 고수들인 조상선, 지용구 등에서는 그의 산조에 장단의 구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40세 전후에 연주한 가야금산조는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미완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1950년대에 강태홍이 즐겨 연주한 짧은 산조와도 그 장단 구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짧은 산조는 약 17분 분량으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던져 놓는 장단, 세산조시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방송에서 주어지는 시간적 제약으로 그의 산조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만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

당시 방송의 한 프로는 대략 30분을 할애하였는데, 만약 그의 산조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면, 충분히 그 시간을 활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야금병창을 삽입하여 한 프로를 꾸민 것으로 보아, 아직 그의 가야금산조가 30분을 다 채워서 연주할 만큼 긴 구성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가 완성되는 시점은 1940년 이후 그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부산의 동래권번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의 나이 40대 후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다.

강태홍의 음반 취입 활동

강태홍은 방송에 비하여 유성기 음반의 취입 활동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그가 음반에 취입한 음악은 가야금병창이 2매, 가야금산조가 2매 그리고 반주음악이 1매로, 모두 5매에 지나지 않는다. 복각판과 반주음반을 빼면 2매가 전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가 음반 취입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방송에 비하여 음반은 상업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당시의 가야금산조나 가야금병창은 그 만큼 상업성에서 우위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던 장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56p)와 같이 그의 가야금산조가 1935년 무렵에는 장단에 의한 틀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앞의 방송에서 그의 가야금산조가 1936년부터 장단에 의한 장별 구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1930년대 중반부터 즉, 그의 나이 40세를 지나 장단에 의한 장별 구분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의 가야금병창은 새타령을 취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의 방송의 경우도 적벽가를 많이 불렀다. 아마도 이 새타령은 적벽가 가운데 늦은중모리 장단에 얹어 부르는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로 시작하는 대목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그가 즐겨 부른 병창의 레퍼토리에는 새타령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성기음반에 취입하는 것은 아마도 연주자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노래했을 것으로 미루어 그의 장기는 새타령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다.

유성기음반에 취임된 강태홍의 음악

음반명 갈래	일축	일동	콜럼비아	빅타	포리돌	시에론	오케	태평
가야금 병창 (伽倻琴 併唱)				새타령V.49111(429, 1935.2) V.KS-2020(544, V.49111, 1937.11, 복각판)				
가야금 산조 (伽倻琴 散調)				한성준장고(韓成俊長鼓)(진양, 중모리, 자진중모리, 잔모리) V.49244(442, 1935.2) 기악(器樂)(진양, 중모리, 엇모리, 잔모리) V.KJ-1342(534, 1939.9)				
기타				V.49131(432, 1935.2) 흥부전김초향(興夫傳 金楚香), 가야금강태홍(伽倻琴姜太弘), 고한성준(鼓韓成俊)				

*표 가운데 일축은 일본축음기상회(日本蓄音器商會), 일동은 일동축음기주식회사(日東蓄音器株式會社), 콜럼비아는 일본Columbia, 빅타는 일본Victor축음기주식회사(蓄音器株式會社), 포리돌은 일본(日本)Polydor축음기상회(蓄音器商會), 시에론은 Chieron레코드음반, 오케는 Okeh축음기상회(蓄音器商會), 태평은 태평(太平, Taihei)축음기주식회사(蓄音器株式會社)를 각각 줄여 표시한 것이다.



- » (왼쪽) SP음반 가야금병창(춘향전 십장가)
- » (오른쪽) SP음반 가야금산조(一·二) 긴양도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전개

강태홍은 1939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부민관에서 명창 이동백(李東伯)의 은퇴 공연에 찬조 출연한 후에 서울 활동을 완전히 접고 같은 해 동래권번으로 자리를 옮긴다. 당시 동기(童妓)였던 원 옥화와 강남월을 제자로 두었다. 부산 동래에서 강태홍은 자신의 예술 세계의 결정체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한 바탕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때 한국음악무용연구소와 강태홍무용연구소를 열어 승무·입춤·수건춤 등을 전수하였으며, 가야금과 소리뿐만 아니라 양금·해금·피리 등을 전수하기도 하였다. 말



» 강태홍의 제자 신명숙



» 강태홍의 사진 앞 신명숙



» 강태홍의 제자 구연우

년에 새로운 산조 가락을 만들기 위하여 몰두하였으며 꾸준히 제자를 양성하였다. 부산에서의 제자는 원옥화, 강남월을 비롯하여 박차경, 김춘지, 구연우, 신명숙, 김운경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김운경만이 유일하게 생존해 있다.

늦어도 6·25전쟁 때인 1951년 강태홍의 산조가 휘모리까지 완성되었으며, 당시 동래 온천장에 살았던 부부 구연우·신명숙 두 제자만이 한 바탕을 전수받았다. 이때 부산에서 완성한 강태홍류 산조는 다른 산조에 비하여 접(접)가락이 많이 등장하며, 귀곡성의 풍부한 가락이 전개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그의 가락은 빗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들이 등장한다. 특히 휘모리 부분에서는 연튀김으로 종이우산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그대로 묘사해 내기도 하고 자진모리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세산조시에서는 조랑말의 말발굽소리를 차용하였고, 진양조에서는 초상집의 울음소리를 차용하여 선율로 표현한 부분도 있다. 이렇듯 강태홍류는 그 어느 산조보다도 일상과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가야금 가락으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강태홍의 성품은 강직하고 깔끔해서 평생을 한복만 즐겨 입었으며, 해학적이고 태평스러웠다. 상하 예의가 철저하여 동래권번에서 가야금 외에 예절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65세가 되던 1957년 2월 3일에 마지막 거처였던 부산시 서구 토성동 3가 6번지 김동민(金東旻)의 자택에서 복통을 책상 삼아 구음 악보를 정리하던 중 앓은 그대로, 마치 그의 영혼만이 살짝 빠져나간 듯 붓을 든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의 유해는 평소 교분이 깊었던 범어사 승려 유담과 제자 신명숙에 의해 화장된 후 영도 다리 아래 바다에 뿌려졌으며, 위패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안양사(安養寺)에 모셔졌다. 그리고 현재는 마지막 제자였던 신명숙마저 세상을 떠나고 없으며, 구연우와 신명숙의 아들인 구환석이 고수로 활동하고 있다.

글. 김혜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보유자 후보
사진 제공. (사)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 문진우

낮은 곳에서 음악을 연주한 예인

가야금산조 명인 신명숙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자현(紫絃) 신명숙은 1940년 3월 4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동 581번지 원 웅과 모친 임인남 사이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친은 한의사로 의성 읍내에서 한약방을 하였고 모친은 구봉산 아래 강가에 위치한 집안의 과수원 일을 돌보았다. 일가친척 중에는 국악이나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가 없었으나 신명숙은 대어섯 살 무렵부터 과수원 안에 위치한 집 2층에서 축음기로 민요나 잡가 등을 들으며 자랐고, 2018년 3월 22일 봉생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길, 예인의 길을 걸었다.



신명숙은 평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가야금을 잡았고,
쉽 없이 자신을 연마하는
연주자의 자세를 견지했다.

가야금산조 전설의 마지막 명맥

신명숙은 가야금산조의 전설적인 명인 강태홍 선생의 마지막 제자로 14세부터 산조를 배웠다. 경북 의성의 읍내 약국집, 과수원택 고명딸로 자라 대구 삼덕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란 온 것을 계기로 부산에 살았을 때, 1952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신명숙이 하굣길에 우연히 산 뒷자락에서 들리는 가야금, 장구 소리에 끌려 어머니를 졸라 부산 충무동에 위치한 '한국음악무용연구소'를 찾아가 강태홍 선생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었다. 그후 신명숙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책가방만 놓아두고 강태홍 선생에게 달려갔다. 입춤에서 시작해 가야금 줄풍류, 병창, 수건춤, 승무, 가야금산조 전 바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수업을 받는 동안 소녀 신명숙은 환희롭고 무궁무진한 국악의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당시 강태홍 선생은 1951년쯤 세산조시(단모리)까지 산조를 완성하고 동래권번 등에서 음악과 무용을 전수하던 시기였다. 명성이 자자한 예인이었던 만큼 강태홍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았지만 선생의 완전한 가락을 오롯이 전수받은 제자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구연우와 중학생이던 신명숙 두 사람뿐이었다. 그 인연이 오늘날 신명숙 선생을 있게 했다.

그렇게 강태홍 선생이 아끼는 제자로서 열심히 국악 공부에 매진하던 중 1956년, 신명숙과 함께 수학하던 구연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가게 되었고, 이듬해인 1957년 강태홍 선생은 65세를 일기로 타계한다. 존경하던 스승을 잃은 신명숙은 강태홍 선생의 제자이자 가야금 선배인 원옥화에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배우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후 원옥화 역시 서울로 떠나면서 부산에서 가야금을 배울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봉착한다.



» 강태홍 선생 49세 행사 때 수건춤, 범천동 안양사 앞뜰에서



» 강태홍 선생 삼재 추념 음악공양 (범천동 안양사, 왼쪽 두 번째 신명숙 선생)



» 1978년 10월 자택에서 구연우, 신명숙



» 1999년 부산광역시 문화상 시상식



» 자현 신명숙 선생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보존과 계승

신명숙은 홀로 가야금을 공부를 이어가다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한 달 동안 서울로 올라가 대구 달성권번의 예기(藝妓)로 활동했던 박귀희 선생 덕 문간방에서 지내고 있던, 당시 강태홍 선생의 제자이자 동래권번에서 제일 잘 나가던 중 서울로 올라간 강남월 선생을 찾아가 가야금을 배웠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여자사범대로 진학한 신명숙은 20살 나이에 가야금 연주자의 원대한 꿈을 안고 상경. 원각사에서 주관한 한국민속음악 프랑스 공연단에 합격한다. 하지만 신명숙은 가야금 도반이던 구연우의 청혼을 받게 되고 이를 수락해 1962년 22살 나이로 결혼, 부산에 정착하게 된다. 혼인 후 가정을 돌보기 위해 가야금 연주자로서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기량이 녹슬지 않도록 구연우와 합주는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제자가 별로 없던 강태홍의 말년에 구연우는 부인인 신명숙과 함께 매우 총애를 받는 제자였다. 또 강태홍이 자신의 산조 한 바탕을 완성한 시기가 1950년 전후이기 때문에 강태홍 말년의 완성된 가락을 가장 충실히 이어받은 제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전승되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구연우가 전하는 것이 가장 널리 퍼져 있다.

결혼 후, 개인 수업과 종교 생활에 충실했던 구연우와 20여 년 결혼 생활에만 충실했던 신명숙은 구연우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983년부터 남편을 대신해 제자들을 지도한다. 1985년부터 신명숙은 스승 강태홍 선생과 남편이자 도반이었던 구연우의 뜻을 이어 본격적으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보존과 계승, 발전, 제자 양성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1989년 7월 6일, 신명숙이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보유자로 지정되고 그해 9월 28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가 발족되어 신명숙 선생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연마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음악

신명숙 선생의 교육법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구음으로 교육하는 구전심수(口傳心授) 교육법이다. 구전심수의 교수법은 악보가 없어도 음악 학습을 가능하게 한 우리 도제식 교육에서의 아주 효과적인 전통 교수법이었다. 악보가 꼭 있어야만 교수가 가능하다면 왜 악보를 안 만들었겠는가?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구전심수의 레슨 중 선생이 사용한 악보는 바로 구음으로, 이 구음은 악기의 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육보(肉譜)’라는 용어를 써서 매우 중요한 한국전통악보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장구 장단 중 굿거리를 ‘덩 기덕 쿵 더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 이렇게 장구 소리를 모방하여 부르는 것이 장구구음이며, 그 악보가 바로 장구육보가 되는 것이다. 선생의 교육에는 가야금 구음을 위해 가야금 소리를 모방한 가야금육보가 쓰였음은 당연하다.

“명인들이 악보화를 꺼린 측면도 있었어요. 현을 튕기고 쥘는 세밀한 연주기법의 차이를 직접 곁에서 보고 또 진솔한 속음까지 들어야 하는데, 악보만 읽고 몇 시간 만에 다 배운 양 생각할까 염려한 거지요.”

이 말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이재숙 교수가 <가야금산조 여섯 바탕 전집>을 발간하고 나서 한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 때 하신 말씀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야금산조 여섯 바탕을 모두 학습하고, 연주하고, 또 악보를 만들어 책으로 펴낸 이재숙 교수님은 그동안 가야금산조를 배우면서 명인들이 왜 구전심수를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단순명료하게 제시하였다고 본다. 구전심수는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이재숙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

“원래 가야금산조 한 바탕이 20분이면 충분한데도, 명인 선생님의 기분이 나면 1시간도 연주를 하셔서 어떤 게 선생님의 진짜 산조가락인지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한다. 악보는 악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처음 공부할 때는 악보 없이 공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악보는 오로지 그 음을 위한 참조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같은 태(汰)음 하나도 연주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소리색깔이 나오게 된다. 연주자의 감정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

소리의 맛을 낸다는 것은 흥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소리의 맛은 소리의 깊은 속소리까지 소름이 끼치도록 알아챘을 때, 느꼈을 때 나온다고 본다.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옛 선인, 명인 들께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고 한 것이다. 그게 금방 이루어지겠는가?

신명숙은 평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가야금을 잡았고, 쉼 없이 자신을 연마하는 연주자의 자세를 견지했다. 그는 아름다운 음악은 연주자가 자신을 낮출 때 빛을 발한다는 신념으로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제자들을 이끈 스승이었다.

한국 근대사를 품은 명소 우암동 소막마을

글.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장



» 우암동 야경(동향성당 예수상)



» 동향성당과 북항



» 우암동 산동네

우암동은 오래 전 마을 언덕에 소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소를 수탈해가는 전진기지 역할을 한 곳이다. 각지에서 데리고 온 소를 먹이기 위해 수십 동의 우막사를 설치했다. 한국전쟁이 나면서 피란민들이 그 우막사를 살림집으로 개조해서 살았고, 일부는 가파른 언덕에 판잣집을 지어 살면서 지금의 우암동이 형성되었다.

지금도 남아있는 몇 동의 우막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그 일대를 역사공간으로 지정하고 남아있는 우막 한 동을 역사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 한창 공사 중이다.



➤ 우암동 골목



» 우암동 야경



» 슬레이트 지붕 위의 고양이

주변 주거환경은 아직도 열악하다. 언덕으로 이어지는 집들 사이 골목길은 좁고 가파르다. 오르다 보면 숨이 목까지 차고 사람이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에 못지않을 만큼 매력적인 부분도 있다. 동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북항의 야경은 참 아름답다. 특히 동항성당의 예수상은 북항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과 비슷하여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즐겨 찾기도 한다.

어두워진 언덕 골목을 가로등 불빛을 따라 오르다보니 슬레이트 지붕 위에 앉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낯선 이방인을 쳐다본다. 플래시를 터뜨려도 꿈쩍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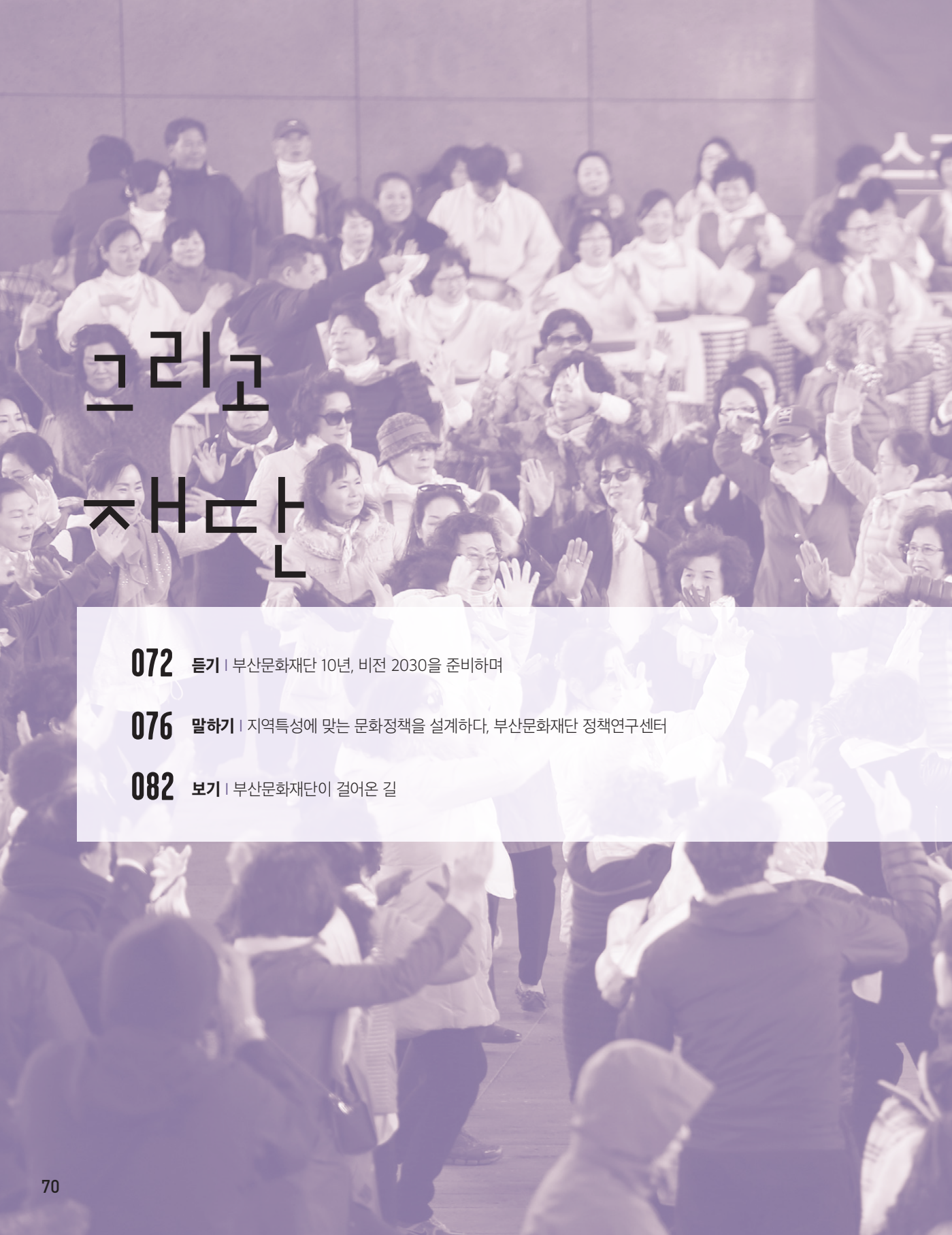
➤ 달상회와 부산의 야경

동네 맨 위쪽에 다다르면 조그만 구멍가게가 나온다. 가게 이름이 달상회이다.
이름이 참 정겨우며 자리한 위치와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달상회에서 내려다보는
북항의 야경은 정말 일품이다.



» 우암시장 골목

우암동은 매죽지마을, 감천문화마을, 문현동 돌산마을, 안창마을 등과 같이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이야기를 많이 품고 있는 장소이다. 아직 골목골목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 흔적을 따라 속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재단

072 듣기 | 부산문화재단 10년, 비전 2030을 준비하며

076 말하기 |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을 설계하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082 보기 | 부산문화재단이 걸어온 길



부산문화재단 10년, 비전 2030을 준비하며

정리.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10:00~12:00

장소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1

사회자 최윤진 부산문화재단 기획경영실 실장

좌담자 남송우 부산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김희진 또따또가 센터장

이승욱 플랜B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김성연 부산현대미술관 관장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 본부장

정리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사진 권순일 포토그래퍼

* 본 기사는 <부산문화재단 10주년 백서 발간 기념 - 이슈 TOP 10 좌담회>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실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윤진 부산문화재단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0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번 좌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고견을 기탄없이 들려주신다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데 귀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통신사를 활용한 자체 수익사업 루트 발굴



김혜진 재단이 자율성을 획득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제일 유력한 것이 조선통신사예요. 조선통신사를 통한 브랜드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단이 조선통신사에 대해 일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충분히 사업적으로 활용하여 브랜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문화재단도 수익사업이 필요합니다. 다른 문화재단도 특별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식의 자체 수익사업이 있는데 부산문화재단에는 아예 없어요. 꼭 조선통신사가 아니더라도 장기 수익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지훈 조선통신사는 소중한 아이템입니다. 박물관에서 머물 콘텐츠가 아니예요. 저도 예전부터 줄곧 세 가지 주제를 토대로 주장해왔는데, 조선통신사는 첫째로 거리예술 차원에서 승화되어야 하고, 맛의 시대이기 때문에 음식과 같이 가야 합니다. 둘째로 도시 한 곳과 집중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대마도하고 많이 교류해왔는데, 앞으로는 요코하마와 집중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부산시와 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코하마가 인구수를 비롯해 문화적으로 부산과 비슷해요. 창조도시, 문화재생 모범도시이기도 해서 집중 교류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마도와 후쿠오카와의 교류에서 성과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요코하마로 교류지를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셋째로 청소년 문화예술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모집해서 일본 명소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듯합니다.

김혜진 조선통신사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테면 전 세계 크루즈들이 부산항에 들어오면 재단이 조선통신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거죠.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통신사의 무형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브랜드 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조선통신사 사업이 축제 행렬을 재현하고 현지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해요. 전후에 수많은 역사적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통신사 브랜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왜관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부산요 사업 또한 병행해야 합니다. 조선통신사의 성신교린 정신과 유사한 형태의 모든 것들이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다 결합해야 합니다.

이승욱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이 재단이 자립형 시설로 오랫동안 핍박을 받

다 보니 또따또가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재단이 누구보다 사업비의 필요성을 잘 알 텐데 외주 줄 때 예산을 이렇게 안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나 싶어요. 자립에 대한 의식을 좀 강하게 가져야 할 필요성이 큼니다.

이지훈 또따또가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대표적 공간입니다. 센터 역할을 해줄 거점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욱 초기에는 조선통신사 재현에 의미를 두고 재단이 지속적으로 조선통신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 이유가 부산을 현대적 한일 교류의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의도이지 않았습니까. 500년 전 당시에도 그때의 현안을 가지고 교역을 했는데, 지금은 지금의 현황에 맞게 조선통신사란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한다면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합니다. 그에 대한 시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질 텐데, 유라시아 철도가 건설될 경우 철도 종착역은 결국 서울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유라시아 철도가 부산까지 내려와야 한다면 그 이유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양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양을 두고 보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러시아까지 포괄하며 바다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남북 관계 진전이 냉전 시대의 해체를 이야기한다면 부산이 그러한 평화시대의 상징으로서 교류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90년대 홍콩이 하던 역할을 부산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정치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냉전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마치 전범국가인 일본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행사를 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냉전 체제의 해체', '평화시대의 도래'와 연동시키면 부산이 한일 관계에 중심에 선 플랫폼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에 맞게 예전의 그릇들을 잘 활용하여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곧 부산문화재단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마련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이미연 조선통신사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조선통신사를 과거에 국한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여기는데, 新(새로울 신) 자를 붙여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산이 조선통신사를 통해 해양 교류의 중심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조선통신사라고 하면 일본이랑 과거에 왔다갔다하며 교역했던 그 걸로 끝 아니냐며, 조선통신사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한정적이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승욱 남송우 전 대표님 계실 때부터 이미 조선통신사를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동시대 플랫폼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말이에요.

김희진 조선통신사가 지닌 중요한 상징성이나 현대적 구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 주는 것 또한 부산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겠지요.

이지훈 사실 동해권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건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포지셔닝하고 있는 바에요. 유네스코 수준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얻은 것은 어쨌거나 조선통신사이고, 이 조선통신사의 핵심이 한일 교류란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질수록 오히려 문화교류가 더 필요하겠지요. 그것이 조선통신사의 출발점이기도 하니까요.

이미연 저희 비전 2030에 글로벌 해양 콘텐츠 강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승우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부산시가 주는 10억이 채 안 되는 예산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어 예산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조선통신사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현실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 조선통신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계속 개발할 필요성이 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평화의 상징 이미지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어필하며 국가 차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적인 정신 또한 지금까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들을 진흥시켜 문화적 혜택을 동등하게 실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문화 콘텐츠가 제대로 진흥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문화예술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한 가지 정도의 지역적 특색을 띤 지역문화를 정부가 제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한광연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는 물론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도 추가 개정할 필요성이 큰데, 권고가 아니라 강제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도 내려주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변화가 전무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한국문화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역문화재단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야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윤희진 부산문화재단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허겁지겁 달려오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2030에는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방점을 두어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그런 역할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을 설계하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글. 안재홍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문화계 여러 분야 전문가들은 지역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사업 중복과 현장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의 문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문화재단은 정부와 시에서 받는 보조금을 중간에서 작가들에게 전달하는 업무가 대부분인 ‘반쪽 재단’에 불과하다. 재단이 부산 문화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국제신문 2019. 7. 9. 보도



반쪽짜리에서 벗어나 재도약

부산문화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무사히 넘겼다. 2009년 시작 당시에는 적은 인원과 많은 위탁사업들로 인해 하루하루 처내기에 급급했던 순간도 있었다. 평일엔 밥 먹듯 새벽야근을 해야 하고 사업과 관련된 만원들을 겨우 쳐내고 나면 주말엔 수백 장의 정산 영수증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지원사업의 중장기 문화비전을 세우고 실천목표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은 그 시대 논리에서 보면 배부른 소리였다.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담당직원들의 연차가 쌓이자 사업과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일정 수준에 다다랐다. 그제야 우리는 재단의 근본 태생적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누군가 가리키는 곳으로 이끌려 나아가고만 있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비로소 방법이 보였지만 주도권이 없는 상황이었다.

초창기 지역문화 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과 사업설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 및 지자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이관하거나 위탁한 사업이 과도하게 진행되었고 전략적 운영 방향의 자발적 모색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며 문화재단이 첫 출발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재단에서 '정책기능'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왜 이 기능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일까? 10년이 지난 지금, 재단은 오랜 시간 한쪽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소위 '반쪽재단'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정책연구기능'을 갖추고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산문화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재단의 설립목적과 정체성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는 재단이 수행해야 할 사업 범위 중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항목이 두 번째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의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는 「부산문화재단 정관」에는 재단 수행업무와 관련한 항목이 오랜 시간 빠져 있었다. 재단 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배제시킨 채 위탁사업 대행의 기능만 주된 역할로 인식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은 정책기능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들 재단이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실행에 옮기는 일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한다는 점이다. 부산과 같은 지역문화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정치적 영향력, 독립성, 행정지원 수행 등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산하기관이란 현실적 포지션과 관행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을 갖추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산문화재단 정체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동안 우리는 문화예술 지원업무에만 집중하다 보니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부산만의 문화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고, 정책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도 미흡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문화예술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예술가들의 창작지원만을 위한 도구가 아닌 일반시민들의 문화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로 발굴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사업추진 능력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

직속기구 체제로의 첫걸음

재단 설립 10년 동안 정책연구가 가능한 별도 조직을 만들기 위해 2년여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다. 2017년 5월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계획」에서 실·본부와 팀별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조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진단과정에서 재단 내 정책연구 기능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7월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이 세워졌고, 기획홍보팀 내 정책연구센터를 우선 설치, 운영하는 안에 대해 당시 유종목 대표이사에게 최초 보고하였다.

정책기능 회복이란 목표는 과제를 풀어내는 데 8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이사회에 조직 구성안을 바로 상정, 재단의 이사장인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9월에 「정책연구센터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재단의 문화정책기능을 공식화하였지만 여전히 현 직제 내에서 구성된 무형의 형태에 불과했다. 전담 연구원이나 직원이 별도로 구성된 독립부서 체제로 운영된 것도 아니어서 본격적인 조사연구나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기에는 역량과 경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

과 한계가 드러났다. 별도 부서로서의 「정책연구센터」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현 강동수 대표 이사 부임 이후인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19년 5월 정책연구센터의 대표이사 직속 신설을 기구화하고 직원 전보발령을 통해 센터장 1명, 일반 직 1명을 구성하게 된다. 이 시기에 그동안 명시하지 못했던 「부산문화재단 정관」의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조항을 새로 추가하고 직제와 정원규정 일부를 개정하였다.

2명으로 시작하는 단출한 구성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앞으로 제대로 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타 지역과 선도기관의 정책연구기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었다. 각종 사례조사를 통해 부산문화재단에 적용해야 할 구성방식과 운영방향에 대한 틀을 갖추고 난 다음, 앞으로 연구센터의 연구과제를 책임질 연구직 1명(정책연구직 나급)을 우선 채용하였다.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보다 공신력 있는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앞으로 4개 분과 26명의 위원들과 함께 부산의 문화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문화정책을 설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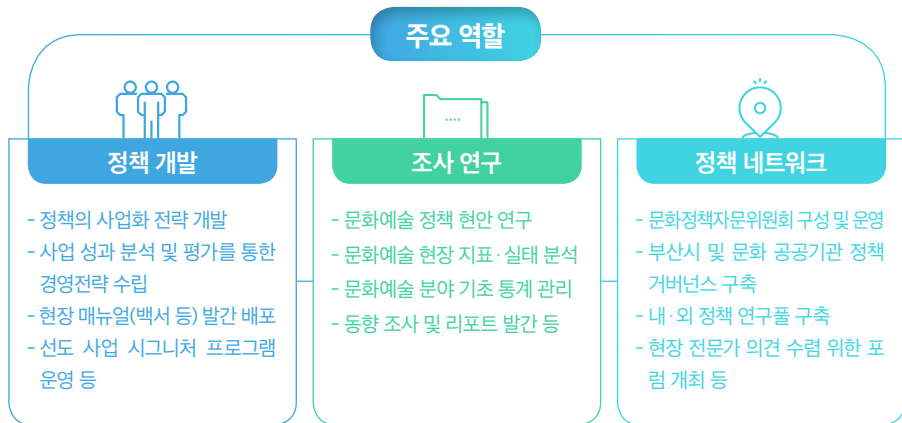
정책연구센터는 현재 감만창의문화촌 3층의 기존 회의실2와 배움방1 사이 가벽을 조정하여 정책연구 아카이브 LAB실을 갖춘 형태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운영되고 있다. 9월 3일 개소식에서 많은 내부직원과 외부 관계자의 축하와 응원을 받으며 첫 출발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2019년은 재단 창립 10





주년인 해이고 비전 2030 수립 주관부서로 지정되면서 선포식 준비가 센터의 첫 번째 수행과제가 되었다. 정책연구센터의 업무는 크게 정책 개발과 조사연구, 정책DB 구축/네트워크 연계 업무로 설명할 수 있다. 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비전 2030 수립과 사회적 가치평가지표 개발, 2019년도 사업평가 기준 설정, 정책이슈페이퍼 제작, 문화정책위원회 구성 및 개최 등 다양한 정책현안 업무를 완료하였고 또 수행 중인 사업도 있다. 아직 연구직 총원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에 첫 번째 연구성과는 2020년 하반기 즈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정책연구과제 후보는 그동안 접수받은 제안서 50여 건을 바탕으로 우선 연구과제를 선정, 재단사업에 직접적인 DB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자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아카이브 LAB실도 기존의 전자아카이브와 연계, 각종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자료나 서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주요역할

정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은 5개의 전략과제와 20개의 추진과제, 65개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그중 다섯 번째 전략과제가 「소통과 협력으로 책임 있는 열린 경영 실천」인데, 한 조직이 조직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강한 조직력과 함께 구성원들의 역량이 최대 관건이라 했다. 중요한 것은 지고 가야 할 짐의 무게가 아니라 지고 갈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키워나가는가다.

연구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부산문화의 수준이 올라갔다니 부산문화의 컨트롤타워가 완성되었다는 하는 외형적 평가를 기대하기보다 시민이 문화생활을 편하게 누리고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과 창작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 제공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더 책임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민과 예술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정책연구센터의 목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정책연구센터 근무자 모두가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과 부산문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애정을 연구 결과물에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이
걸어온 ——— 길

2009

2009

- 1월 창립총회
법인설립 허가(부산광역시 1. 14.)
법인등기(동부지원 1. 21.)
제1대 강남주 대표이사 취임
- 2월 직원임용(사무처장 1, 팀장 1, 직원 3)
- 3월 창립기념식



2010

- 4월 조선통신사 업무 위탁 체결
- 5월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2011

- 2월 제2대 남승우 대표이사 취임
조직 개편: 3부 2팀 ⇨ 2실 1센터 6팀
- 4월 조선통신사 역사관 개관(4. 21.)
- 12월 부산문화재단 2020 비전 수립
재단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 개선



2012

- 1월 부산문화재단 2020 비전 및 CI 선포식
- 5월 조직 개편: 2실 1센터 6팀 ⇨ 2실 1센터 7팀
- 10월 조직 개편: 2실 1센터 7팀 ⇨ 2실 1센터 8팀
부산문화재단 CI 2012년 우수디자인(GD)
선정 및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 11월 사상인디스테이션 위탁 체결



2015

2013

- 5월 홍티아트센터 위탁 체결
- 7월 감만창의문화촌 위탁 체결
사상인디스테이션,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개관(7. 12.)
- 10월 홍티아트센터 개관(10. 30.)
감만창의문화촌으로 사무실 이전
- 11월 감만창의문화촌 개관(11. 20.)



2014

- 2월 제3대 남송우 대표이사 취임
- 9월 제4대 이문섭 대표이사 취임

2015

- 3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다섯손가락> 4년 연속 우수평가
2014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 사업운영
평가 연구 <A> 등급 평가
- 6월 시도 지역협력형사업 최우수 <가> 등급 평가
국악분야·학교예술강사 우수 운영기관 평가
- 8월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 12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2015년 사업평가 <매우 우수> 선정



2016

6월 사·도 지역협력형사업 최우수 <가> 등급 평가
'또따또가' 제2회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
심사위원단 특별상 수상(International
Award UCLG-Mexico City-Culture21)



2016

11월 2016 우수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증

12월 2016년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제5대 유종목 대표이사 취임

2017

2월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2. 28.)

6월 2016년도 사·도 지역협력형사업 최우수
<가> 등급 평가

8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문화진흥분야 <가> 등급 평가
조직 개편: 1실 2본부 8팀 → 1실 2본부 9팀

10월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2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인증



2019

2018

4월 한성 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개관(4. 12.)

6월 부산지역 국가유공자 및 고령보훈가족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국가보훈처 표창 수상(6. 28.)

8월 한일 문화교류 기여 한일포럼상 수상(8. 21.)

10월 한일 문화교류 기여 세종문화상 수상(10. 8.)



2019

1월 제6대 강동수 대표이사 취임

5월 조직 개편: 1실 2본부 9팀 → 1실 2본부
1센터 9팀(정책연구센터 신설)

9월 비전 2030 선포

부산문화의 모~든 소식 여기 다 있네!

#부산문화재단 SNS와 친구를 맺어야 할 이유

언제 어디서든
부산문화재단의
소식을 받을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실시간으로 1:1상담이
가능하다.



f 좋아요



blog 이웃신청



YouTube <컬쳐Tube>
구독 신청



Instagram 팔로우



TALK 옐로아이디
친구 추가



문화동행 10년,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계간지 「공감 그리고」 주요 배포처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051-745-7224)

감만창의문화촌/조선통신사역사관/CATs 사상인디스테이션/홍티아트센터/F1963/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도시철도 북 하
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시
중앙도서관/부산국립국악원/부산시립미술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을숙도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동래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해운대문화회관/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상상공간 아르케/모퉁이극장/부산지역
작은도서관, 민주공원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협력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후원혜택
1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후원혜택
2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후원혜택
3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051-745-7253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흥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 시립미술관, 영광도서, 민주공원,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4 E-mail. bscf@bscf.or.kr



<겨울 바다>(2017)
•이지은 작가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ISSN 2586-1077